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5.10.26 (627호)

**2. 아침묵상**

이번주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 수, 목, 금 아침 6시에 유튜브  
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새교우환영**

새가족 성경공부인 '길찾수' 성경공부를 모두 이수하신 경미경 성도님이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가족이 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4. 창립주일&종교개혁주일**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지 12주년이 되는 창립주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5. Daylight-Saving Time 종료**

돌아오는 주일(11월 2일) 자정을 기해서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토요일 밤 주무시기 전에 아날로그 시계를 한 시간 뒤로 조정하시고 주무십시오.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이 됩니다.

비교판판지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0/19)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61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다함께
누가복음 20:20-26	누가복음 20:20-26
특송 Prayer	정재신 / 최광철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찬양 Praise	유형선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다함께
주일대표기도	유형선
11월 2일	11월 9일
윤한진	서경열
<b>예배시간안내</b>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b>공동기도제목</b>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파괴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였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여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함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도 첨가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땅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을 한명 보내서 열매를 거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그 종을 죽여 버립니다. 두번째 종도, 세번째 종도,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즉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의 아들까지 죽여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1%도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우십니다.

즉 인간들이 버린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내 세울 것이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꾸 다른 걸 올려 놓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선행, 우리의 가치 쟁기기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반석위에 집을 짓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